

자생식물 적용을 통한 DMZ 불모지 복원공법 연구

김영은¹, 김동학¹, 조형복¹, 허미영¹, 김상준^{2*}

¹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연구원, ²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연구사

Study on the Restoration Method of DMZ Barren Land through the Application of Native Plants

Young-Eun Kim¹, Dong-Hak Kim¹, Hyeong-Bok Cho¹, Mi-Young Huh¹ and Sang-Jun Kim^{2*}

¹Researcher, DMZ Botanic Garden, Korea National Arboretum, Korea

²Forest Researcher, DMZ Botanic Garden, Korea National Arboretum, Korea

지속가능한 DMZ 일원의 생태복원 추진을 위해 DMZ 생태교란지에서 복원공법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은 강원도 인제군, 철원군 및 경기도 연천군의 DMZ 내(450m²)에서 진행되었으며, 흰민들레, 구절초, 매발톱, 질경이, 꿀풀이 공시식물로 사용되었다. 각 대상지의 식생유형별 시공방법에 따른 침입종 억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일반식생기반재와 특수식생기반재로 처리된 실험구의 전체 피도, 도입종 피도, 침입종 피도, 초장, 출현종 등을 측정하였다. 전체 피도는 세 곳 모두 일반기반재보다 특수기반재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나 대상지에 따라 침입종 피도가 미치는 영향은 달랐다. 도입종의 피도는 인제, 철원, 연천에서 동일하게 흰민들레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특수기반재에서 보다 높은 피도를 보였다. 폭염 및 폭우로 6월 이후 흰민들레가 감소하면서 구절초, 매발톱의 피도가 점차 증가하였으며 기반재 간의 큰 차이는 없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구절초 피도가 특수기반재보다 일반기반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지역에서 질경이와 꿀풀의 생장은 미미하였다. 같은 처리를 했음에도 대상지별로 소재식물의 출현 여부, 생장률, 침입종의 피도 등이 다른 것으로 보아 복원지의 환경 여건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중, 시공방법, 주변 완충지역의 범위 등에 차이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orresponding author) genius3807@korea.kr, Tel: +82-33-480-3020